

## 국 외 소 식



### 중지린성 “야생호랑이에 물리면 정부에서 보상”

중국 지린(吉林)성이 야생호랑이를 비롯한 중점 보호대상 야생동물로부터 주민들이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중국의 현지언론들이 11월 6일 보도했다.

성시만보(城市晚報)와 길림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린성 정부는 최근 ‘중점보호육지야생동물 인신 재산손해보상방법’이라는 규정을 제정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습격을 받아 상해를 입은 경우 성 정부에서 치료비의 80%를 지급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는 연평균 중업원 노임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새 보상규정은 지난 9월21일 지린성 훈춘(琿春)시 시자산(西架山)촌에 거주하는 조선족 농민 김진성(金鎮成, 68)씨가 마을 뒷산에서 야생호랑이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정부가 ‘동북호(東北虎)로 불리는 시베리아호랑이(한국명 백두산호랑이)의 보호를 위해 동북지방의 야생호랑이 서식지를 자연보호구로 지정한 뒤로 야생호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린성 정부는 신체 상해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와 같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성 정부와 해당 시, 현 정부가 각각 50%씩 분담해 피해액을 보상키로 했다. <중국 선양> 조계창 특파원(phillife@yna.co.kr)

2006년 11월 6일

### 비둘기 멀리서 자기집 찾아오는건 자기센서 덕분

동물들이 수천km 떨어진 곳에서도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오는 건 코 부위에 있는 자기(磁氣) 센서 덕분이라고 뉴질랜드 과학자가 10월 29일 주장했다.

뉴질랜드 언론들에 따르면 오클랜드 대학의 마이클 위커 교수는 무지개 송어, 꿀벌, 비둘기들이 수천km 떨어진 곳에서도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코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기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커 교수는 25년 동안 동물들의 귀소 본능에 관심을 가지고 철따라 이동하며 사는 물고기들과 철새들을 동료들과 함께 연구해왔다며 그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애완동물들이 다른 집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옛날 집을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자신의 연구팀이 지구의 자장을 이용해 동물들이 자기 집을 찾아온다는 그동안의 추측을 확실하게 검증해낸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밝혔다.

그는 “동물들은 자기장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무지개 송어의 주둥이 부근 세포에서 아주 작은 양의 무기질 자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질 자기가 들어 있는 세포들이 신경조직을 통해 송어의 뇌에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면서 천연

자석으로 알려진 이 자기는 아주 간단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주용 비둘기를 이용해 실험해 본 결과 비둘기들이 지구의 자장에 바탕을 둔 자신들만의 위도와 경도를 만들어내며 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팀이 15마리의 경주용 비둘기들을 오클랜드 부근의 여러 지점에서 날려 보내며 위성추적장치를 이용해 이들의 비행을 조사해보았다며 비둘기들이 자연 상태의 자장에 반응하면서 비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둘기들이 이밖에도 지형지물, 태양, 시각적인 단서들을 이용해 집을 찾는다면서 특히 비둘기들은 비행하는 쪽으로 커다란 도로가 뻗어 있으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질 때까지는 그 길을 따라 날아간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한성 통신원(koh@yna.co.kr)

2006년 10월 30일

### 중국판 한약분쟁, 중의학 폐지론에 전면대응

인터넷 중의학 폐지 서명운동에 자성 목소리도

중국 일부 서양의학자가 과학성이 떨어지는 중의학(中醫學)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놓자 중국 중의학계가 발칵 뒤집혀 전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홍콩 문화보(文匯報)가 11월 6일 보도했다.

마치 1990년대말 한국에서 한의사와 약사간에 전면 대결을 벌였던 한약(韓藥) 분쟁을 연상시킨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중국의 주요 중의원 원장 200여명은 4일 충칭(重慶)에서 전국중의원발전대책 토론회라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된 중의 폐지론을 격렬히 성토했고 나섰다.

지난달초 중남(中南)대 장궁야오(張功耀) 교수는 미국 뉴욕의 의사 왕청(王澄)과 공동 명의로 “중의(中醫).중약(中藥)은 과학적 원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 건강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중국 의료체계를 서양 의학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급기야 중국인 사이에 중의학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던 터에 온라인상에서는 “중의와 작별하자”는 인터넷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한국이 허준의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국 중의학계가 자극을 받은 한 원인이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충칭의 중의원 원장 썩딩룬(瞿定倫)은 “중의학은 서양의학이나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중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중 의학을 폐지하려는 망발과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론에 대한 성토와 함께 중 의학을 되돌아보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중의원들이 돈 벌이에 혈안이 돼 서양의학이나 중.서(中.西)의학 결합 병원으로 전환하는 최근의 추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 중의사 자격시험의 내용이 상당부분 서양의학으로 채워져 있고 제도적 지원과 관심의 부족으로 수많은 중의학 의술과 비방이 실전되거나 유실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부분도 비판을 받았다.

중국 법규상 중의학 전문의는 반드시 4년제 의대를 졸업한 뒤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전통 도제 식 시스템에 의해 의술을 전수받은 중의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

실제 의료경력을 가진 명의(名醫)들이 본과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권에서 배제됨에 따라 대대로 이어져온 의술과 비방이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의과학원 등은 정부가 중의약법을 마련, 지원기금을 설립해 중의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오랜 역사의 중의원 경영을 돕는 한편 모든 질환을 중의학 의술로만 치료하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 보상 체제를 개혁하고 약제에 의존하는 경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콩> 정주호 특파원(joocho@yna.co.kr)

2006년 11월 6일

### ● 中 선양시 애견관리 비상, 매달 1천명 개에 물려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성도 선양(瀋陽)시는 최근 개에 물려 시민들이 상처를 입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애완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0월 30일 선양시 공안국 등에 따르면 작년 이후 올해 9월까지 개에게 물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매달 1천 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2005년 한해 동안 선양시에서 시민이 개에게 물린 사건이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타인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호소하는 투서만 1천 건에 달하고 있다.

개로 인한 피해가 많다 보니 선양시 공안국은 아예 공견대대(控犬大隊)까지 만들어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사건 숫자는 2002년 이래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작년을 기점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원인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양시 공안국 통계에 따르면 개 관련 사건은 2002년 이후 매년 7천 건 수준에서 많게는 2만여 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선양시 공안국에 등록된 애완견은 15만 마리 정도. 하지만 공안국은 시내 주택가를 중심으로 비등록 애완견의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선양> 조계창 특파원(phillife@yna.co.kr)

2006년 10월 30일

### ● 내과환자 4분의 1 “약이 병 키웠다”

종합병원 내과 환자 4명 중 1명은 병을 치료하려고 먹은 약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병원을 찾는다는 조사 결과가 캐나다에서 나왔다.

11월 2일 내셔널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임상약학자인 피터 제드 박사 연구팀이 지난해 12주 동안 밴쿠

버중합병원 내과를 찾은 환자 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의 24%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이나 약 부작용 등 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생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72%는 약을 제대로 썼으면 피할 수 있는 병증이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제드 박사는 "약품 사고의 대부분은 심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조사대상자 중 10명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1명은 잘못된 투약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환자는 심장병·당뇨병·신경질환 등 다양한 병을 앓고 있었으며, 약품 오용의 원인은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 환자의 투약지시 불이행, 부작용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약물요법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제드 박사는 "밴쿠버에서 조사했지만 전국의 종합병원이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품 사고를 막으면 병원을 찾는 환자의 5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시스템의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병원연합체인 캐나다보건협회의 사론 솔즈버그-게리는 "약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간단치 않다"며 "환자와 처방·투약을 쉽게 파악할 수 전산 의료기록 시스템이 약품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밴쿠버> 오룡 통신원(oryong@yna.co.kr)

2006년 11월 3일

## 美 FDA, 복제동물 우유·육류 시판 허용할 듯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복제동물에서 생산된 우유와 육류의 일반 소비를 위해 시판을 허용할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말께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10월 17일 보도했다.

이는 새로운 자료들을 통해 복제동물이나 그 새끼로부터 얻은 우유·육류가 소비자에게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작업을 이끌어온 스티븐 선드로프 FDA 수의학 팀장은 "복제동물에서 얻은 음식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는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황금시장'을 기대하면서 복제가축을 사육해온 농가와 기업은 복제기술이 재래식 목축으로 얻기 힘든 고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코기와 기름기가 이상적으로 배합된 소고기, 기름지지 않으면서 맛있는 돼지고기가 식품점 판매대에 오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반응을 보이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돌리' 양고기와 '복제 커피크림'을 소비자가 외면하리라 보는 대형 식품회사 연합체도 반대 대열에 합류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공유하는 압력단체들은 10월 12일 FDA가 일괄적으로 시판을 허용하지 말고 신약 규제 방식처럼 복제가축에 대해서도 한 번에 한 종류씩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복제동물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시판시기를 대폭 늦출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복제기술에 대한 윤리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FDA는 3년전 복제동물의 우유·육류 판매를 허용할 뜻을 처음으로 시사, '궁금하다'에서 '역겹다'에 이르는 다양한 여론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김화영 기자(quintet@yna.co.kr)

2006년 10월 17일

● 충견이 집에 불나자 장애 주인 구하고 숨져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마을에서 집에 불이 나자 충견이 소아마비 장애 주인을 구한뒤 고양이 마저 구하려 불길에 갇힌채 숨을 거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0월 16일 AP통신에 따르면 10월 15일 저녁 위스콘신주 엘카트레이크 남쪽 라인 마을의 제이미 헨슨(49.여)씨 집에서 고양이가 초를 쓰러뜨려 불이 나자 '제시' 라는 이름의 13살짜리 개가 헨슨씨에게 먼저 전화기를 물어다 쥐 911에 전화를 걸게 한뒤 의족을 가져와 밖으로 피신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집안에 불길이 더욱 거세지면서 '제시' 는 안에서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고양이와 함께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고 헨슨씨는 밝혔다.

3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헨슨씨는 충견 '제시' 덕에 한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었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이날 화재는 헨슨씨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고양이가 탁자 위로 뛰어오르는 순간 초가 넘어졌고 마침 초가 인조 조경수 쪽으로 쓰러지면서 일어났으며 이 조경수 옆에 헨슨씨의 의족이 놓여있어 헨슨씨가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

플드리트리버종과 독일 셰퍼드종이 섞인 '제시' 는 인명 구조 훈련을 받았으며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집 전체에 불길이 번진 상태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장익상 특파원(isjang@yna.co.kr)

2006년 10월 17일

## 국내 소식



● 서해안 우이도 희귀조류 대거 관찰

노랑부리백로, 매 등 10종 서식

전남 신안군 우이도 해안사구와 충남 구례포, 삼봉, 신희 해안사구에서 멸종위기 1급 노랑부리백로와 매, 2급인 개구리매, 말뚝가리, 삼광조, 새홀리기, 솔개, 알락꼬리마도요, 맹꽁이, 표범장지뱀 등 희귀 야생동물 10종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해안사구 2005년도 정밀조사 결과' 에 따르면 생물 343종이 발견된 우이도 해안사구는 육지에서 보기 힘든 '산태' 라 불리는 바닷가 모래언덕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고 우이도내 떠발넘어 사구지대는 소형이지만 황사구(초승달 모양의 사구가 황으로 연결된 사구)가 관찰됐다.

우이도 돈목과 성촌 사구지대에는 통보리사초군락, 순비기나무군락 등 사구 특유의 식생 군락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성과 경관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구례포와 삼봉, 신희 해안사구 일대는 표범장지뱀이 집단 서식하고 있어 장지뱀 산란기인 5~6월 사구지역의 활용을 억제하는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봉의 경우 사구포집기(모래를 집적하는 인공 구조물) 덕분에 펜스 뒤로 많은 모래가 모이고 생물이

457종에 달했으며 구례포는 생물 316종이 살고 있다.

해안사구는 해안의 침식을 막고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며 사구성 생물의 서식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경지 및 규사 채취, 건축공사, 자동차 통행 등으로 사구는 물론 습지까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성용 기자(ksy@yna.co.kr)



2006년 10월 15일 노랑부리백로(환경부제공)

### 유사시 주한미군 애완동물도 탈출한다

벨 사령관, 유사시 애완동물 처리방안 지시

“한반도 유사시 비전투요원의 탈출은 물론, 애완동물 구조 계획도 마련하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매년 두 차례 비전투요원을 탈출시키는 소개(疏開) 훈련(NEO)을 실시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유사시 소속 장병이나 가족들의 애완동물 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10월 30일 미군 전문지인 성조에 따르면 버엘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6~29일 NEO 훈련기간 장병에게 유사시 장병이나 가족들의 애완동물 처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벨 사령관은 “그들의(장병 및 가족) 차량과 5천여마리의 개를 포함한 애완동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해외 군사기지의 폐쇄를 목격해왔으며 심지어 그때(평시)도 애완동물이나 차량을 옮기는데 혼란이 일어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는 것. 그는 “비상시에는 애완동물을 안락사시키거나 배로 실어나는 방법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애완동물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25파운드(11.3kg) 이하의 애완동물에게 유사시 수송 등을 위해 일종의 인식용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현재 25 파운드 이하 애완동물을 소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 26~29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용감한 해협(Courageous Channel)’이라는 작전명으로 1만4천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 가족 등 비전투요원들을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탈출시키는 소개훈련을 실시했다. 이귀원 기자(lkw777@yna.co.kr)

2006년 10월 30일

### “전통의학, 양학과 결합·표준화 시급”

한의학硯 12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서양의학과 결합연구가 절실하며 표준화와 과학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10월 19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덕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전통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한의학연구원 12주년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아시아 7개국 관계자들은 각국의 전통의학 연구개발 흐름 발표를 통해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중의과학원 장치(Zhang Qi) 부원장은 ‘중국 전통의학의 연구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중국 의료체계는 서양학과 중의학이 적절하게 결합해 있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 중의학 연구개발의 목표는 중의학과 서양학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결합하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전통의학 관련 전문용어의 처방, 약제 등의 다양한 분야가 통일돼야 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임상과 약제 등 중의학 분야에서 500개의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립전통의학병원 추 쿡 트롱(Chu Quoc Truong) 원장은 “세계적인 대체의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의 전통의학이 기반을 굳건히 하려면 현대화와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약제와 경혈, 처방 등 다양한 전통의학 분야에서 각 나라 간 국제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학연구원 김종렬 선임부장은 “서양학과 전통학을 결합시키는 체계의 개발은 세계 전통의학계의 대세”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전통의학 흐름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세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는 중국과 베트남 외에 일본 북리연구소 동양의학총합연구소, 대만 중국약연구발전기금회, 호주 RMIT 대학 중의학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관계자 등 아시아 7개국 전통의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성민 기자(min365@yna.co.kr)

2006년 10월 19일

전 기사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